

한일 위안부 문제 24년만에 마침표 찍었는데..

日 법적책임 문제 ‘창조적 모호성’으로 어물쩍

日 외상 “배상 아니다” 피해자 설득 과제 남아

한국과 일본은 24년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28일 마침표를 찍었지만 일본의 법적책임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은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일 양국이 ‘메을 수 없는 간극’인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을 발휘한 것이다. ‘책임’에 아무런 수식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측의 법적 책임을, 일본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당장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 “배상이 아니다”면서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한일간의 ‘그레이트(회색지대)’ 활용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65년 한·일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최대 난점은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조약이었는지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였다.



2011년 12월 14일 정대협이 1천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소녀상을 세운 뒤 시민들이 따뜻한 정성과 위로로 담아 다양한 웃을 일한 모습. /연합뉴스

일본측은 “당시에는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했고, 우리 측은 “강압·불법에 의한 조약으로 체결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고, 현재까지도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고집하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 결과를 같은 선상에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10억엔 상당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해소된 만큼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은 불가능하며 민간의 모금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관건은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이 이번 합의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를 우회한 것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피해자들이 대거 반발할 경우 이번 합의는 빛이 바래게 된다. 양국이 기대했던 한일 관계의 개선국면 진입도 기대만큼 본격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관련단체와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 이번 합의의 의미를 최대한 잘 설명 드리고, 피해자의 명예 및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색 없고 수익 없는 지역축제 2015년 문화전당과 연계해야 성공”

광주시, 12개 축제 평가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해야한다는 광주시 자체 분석이 나왔다.

28일 시가 공개한 ‘2015 지역축제 평가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역축제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차별화된 콘텐츠, 프로그램 발굴 등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와 5개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12개로, 총 47억1백만원이 투입됐다.

이중 문화체육관광부 기준(3일 이상 불특정 다수가 참여)에 충족하는 축제는 아리랑 대축전, 김지축제,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추억의 7080 총장축제, 굿모닝양림, 광산우리말축제 등 6개다. 이외에 시 축제위원회가 운영하는 축제는 정음성축제, 오월장작가요제, 임방울국악제, 서창만드리포년제, 정월대보름한마당, 고싸움놀이축제 등이 있다.

시는 이들 축제와 관련, 내용 면에서 대부분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타 축제와 차별화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발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시·공연 위주로 운영된다고 분석했다.

총장축제와 같은 일부 축제의 경우 주제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동기가 흐려지고 있으며, 개최시기가 가을(9~11월)에 집중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수익면에서 대부분의 축제가 낙제점이었다. 시는 김지축제(11억원), 광산우리말축제(6300만원), 총장축제(170만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이

없었다고 파악했다.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한마당은 대표 프로그램인 탈집태우기, 쥐불놀이를 야간에만 진행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SNS 홍보강화, 주 방문객인 노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이 개선사항으로 나왔다.

전국오월장작가요제는 전국 547팀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지만 올해부터 가족음악회가 따로 분리되며 예산이 삭감됐다. 창작가요제만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전망이다.

광주아리랑대축전은 아리랑을 소재로 꾸민 다방, 영화관, 책방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총장축제와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고 지역별 아리랑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남도적인 요소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남구 김지태운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된 세계김지축제는 협소한 행사장과 주차장, 부족한 접근성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축제들이 개선·발전되기 위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오월장작가요제는 민주평화교류원,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문화창조원과 함께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2016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일부 전시를 전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고싸움놀이축제, 서창만드리포년제 등은 단순 재현행사가 아닌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월장작가요제의 경우 공모에 제출된 창작곡을 MP3파일로 만들어 무료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용희기자 kimyh@

김학순 할머니 1991년 공개 증언 일본 무라야마 정부 한때 ‘사죄’도

위안부 표면화부터 타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전쟁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일본군은 ‘방사들의 점령지 원주민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주둔지 주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본국은 물론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위안부를 조달했다.

최소 5만명에서 최대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위안부들은 대부분 강제로 납치당하거나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성노리개로 전락했다. 이들

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조선인(51.8%)이고, 중국인이 36.0%, 일본인이 12.2%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안부 문제는 종전 후 4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서야 표면화됐다. 수치심에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그제야 하나 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1991년 독립운동가의 딸이었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중국 철빈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가 겪게 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한국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1992년 1월 8일부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집시시위가 시작됐다. 1992년에는 네덜란드 출신 안 루프 오

해른 할머니의 증언으로 ‘백인 위안부’의 존재 역시 세상에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19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고, 1994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식민지와 주변국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 모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반발한 피해자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고, 일본이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은 2005년 성과없이 해체됐다.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문서공개인관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 사안에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법재판소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정부는 이후 12차례에 걸쳐 일본측과 국장급 협의를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6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달 2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의 가속화에 합의했고,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연합뉴스

호남 첫 여성 서양화가 김영자 화백 별세

‘호남 최초 여성 서양화가’인 김영자 화백이 2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3세.



서울에서 작품활동 등을 했던 김 화백은 지난 1984년 광주 전시회를 마친 후 목포에 정착, 후배들을 가르쳤고 예향목포인연합회 회장을 맡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1922년 목포에서 태어난 김 화백은 일본으로 건너가 우에노미술전문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그는 귀국 후 천경자와 함께 한국 여류화단을 이끌었다. 김 화백은 1953년 광주와 대전에서 첫 개인전을 연 것을 비롯해 60여회 전국 순회전을 개최해 이름을 알렸다.

젊은 시절에는 나무를 즐겨 그렸고 노년에는 농악과 유달산, 삼학도를 주요 소재로 삼는 등 풍경과 풍속을 다뤘다. ‘농악’ ‘시리즈’, ‘군부’, ‘탈춤’ 등으로 ‘김영자 화풍’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화 크로키도 독특한 경치를 보여주는 화풍으로 꼽힌다. /김용희기자 kimyh@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F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